

귀국 청년의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와 외로움의 관계: 재문화충격과 정서인식명확성의 순차적 매개효과

김 채 은¹⁾ 김 유 찬²⁾ 이 규 민³⁾ 유 금 란[†]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해외에서 거주 후 귀국한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가 재문화충격과 정서인식명확성을 통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귀국 청년 135명($M=22.87$ 세, $SD=3.3$, 여성=92명, 미국=32명, 튀르키예=3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시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9.0을 사용하여 변수의 기초통계량을 확인하였고,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독립표본 t-검증,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SPSS PROCESS macro 6번 모형을 사용하여 이중매개효과를 분석하고 Bootstrap 방식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귀국 나이가 많은, 출국 나이가 어린, 해외 거주기간이 긴 집단일수록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 정도가 높았고, 여성이거나 해외 거주기간이 긴 집단일수록 재문화충격 정도가 높았다. 둘째,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 재문화충격, 외로움은 정적 상관관계가, 정서인식명확성은 다른 변인들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귀국 청년의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와 외로움의 관계에서 재문화충격의 단순 매개효과는 유의하였지만,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귀국 청년의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와 외로움의 관계를 재문화충격과 정서인식명확성이 순차적으로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귀국 청년의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와 외로움 사이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이들의 심리적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을 논의했다.

주요어 : 귀국 청년,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 재문화충격, 정서인식명확성, 외로움

1)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재학

2)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학부 재학

3)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학부 재학

† 교신저자: 유금란,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Tel: 02-2164-4271, E-mail: kyu@catholic.ac.kr



Copyright ©2025,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급속한 세계화 속에서 국경, 인종, 종교, 이념 등의 장벽이 허물어지며 다양한 문화들의 공존을 위한 ‘문화다양성’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화두이다. 국내에서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최근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의 위원국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문화다양성아카이브, n.d.; 서애영, 2023).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으로만 국한되었던 논의들이 한국 사회 내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한건수, 2015). 한편, 이러한 세계화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학업, 부모의 직장 등의 이유로 해외 거주 기회가 늘어났다(장예은, 2017). 자연스레 새로운 문화권에서 생활하다가 귀국하는 움직임이 늘어났으며 2023년 해외 장기체류 후 귀국한 내국인은 전년보다 13.2% 증가한 약 22만 명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4). 해외 거주 후 귀국한 개인은 일반적으로 적응과정을 겪어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가지고(Hervey, 2011) 모국 문화에 완전히 속하지 못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Bonebright, 2010). 따라서, 귀국 청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시각에서 이들만의 특수한 적응 양상을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개인은 다른 인종 및 문화의 차이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Bikos et al., 2009; Gerner et al., 1992)를 보이는 동시에 정체성의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정체성이 형성되는 청소년 시기에 안정적인 문화적 배경을 찾지 못하면 우울, 낮은 자아존중감, 소외감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Vivero & Jenkins, 1999). 청소년기 정체성의 어려움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지며(Hisano, 2015), 정체성의 위기

는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큰 변화가 생기는 시기마다 인생의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Erikson, 1959). 청년기는 대학 진학, 취업, 결혼, 이사 등의 중요한 사건을 겪는 역동적인 변화의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기 의존적 역할에서 성인기 독립적 역할로 전환하며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어(Erikson, 1959; Wood et al., 2018) 이들의 재문화적응과정이 쉽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제3문화 성인 아이들(김혜정, 2021), 교차문화 청소년(남지은 등, 2018), 귀국 대학생(장예은, 2017; 장예은 등, 2019; 정안숙 등, 2015) 등의 다양한 용어와 범주로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귀국 청년을 독립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삶의 전환기에 있는 귀국 청년이 재문화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복합적이 어려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차문화아이들(Cross-Culture Kids; CCKs)은 만 18세 이전 두 개 이상의 문화적 환경에서 일정 기간 이상 유의미한 교류를 하며 살았거나, 사는 사람을 일컫는다(Pollock et al., 2010). CCKs는 제3문화 아이들(Third Culture Kids; TCKs), 다문화 아이들, 다인종 아이들, 소수자 아이들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Pollock et al., 2010) 귀국 청년 역시 포함한다. 최인화(2009)는 연구를 통해 개인의 사회적 연결망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만 18세 이전에 출국하여, 해외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귀국한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귀국 청년’으로 정의하였다.

귀국 청년을 비롯한 TCKs 및 CCKs는 성장과정에서 독특하고 혼치 않은 경험을 통해 다문화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다(Pollock et al.,

2010). 그러나, 어린 나이부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장기간 경험하고 매사에 자신이 틀렸다고 느낀다. 이는 어느 문화 집단에서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와 연결된다(Vivero & Jenkins, 1999). Vivero와 Jenkins(1999)에 따르면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를 지닌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가진 무언가가 스스로에게는 없다고 느끼며 그 결여가 무엇인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로 인해, 막연한 상실감을 느끼고 다른 이들과 경험을 공감하기 어려워하며 비교적 강렬하고 만성적인 결핍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으로 인해 문화적 소속감이 부재한 개인은 외로움과 강한 슬픔을 경험한다(Vivero & Jenkins, 1999).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문화적응과정보다 귀국 시에 겪는 재문화적응과정의 어려움이 더 크다는 보고가 있으나(Martin, 1984),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현실이다(Fail et al., 2004). 이처럼 재문화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재문화충격이라고 한다(이승민, 양은주, 2015). Martin(1984)은 재문화충격의 원인으로 모국 문화의 변화를 지적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귀국을 ‘집’으로 돌아간다고 여겨 어려움을 예측하지 못한다. 주변인들 역시 귀국한 개인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여 재문화충격과 함께 외로움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한다(Gaw, 2000; Storti, 2001). 또한 한국을 포함하여 집단주의적 문화권은 개인을 집단의 기준에 맞추도록 압박한다(정안숙 등, 2015). 집단주의적 문화권으로 귀국한 유학생은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피하고자 홀로 시간을 보내며 위축되는 경향을 보인다(Nielsen, 2022). 이를 통해, 집단주의

적 문화를 가진 한국(최해연, 민경환, 2007)으로 귀국한 청년들은 재문화적응과정에서 상당한 재문화충격을 경험하여 그 과정이 순탄치 않으리라 예측된다.

재문화충격이 클수록 생활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 뿐 아니라 심리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Gaw, 2000; Salmon, 1987). 생활스트레스는 우울, 불안 등 고통스러운 정서를 야기하며 이러한 부정적 정서가 적절하게 해소되지 못하면 다양한 정신병리로 발전될 수 있다(이지영, 권석만, 2006; 조성경, 최연실, 2014). 개인의 정신건강과 스트레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서 조절이 핵심적이며(Ciarrochi et al., 2002), 우선 명확하게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서정, 2006; 임전옥, 장성숙, 2003; McFarland & Buehler, 1997). 이처럼 구체적인 감정을 인식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정서인식명확성이라고 하며 단순히 정서의 좋고 나쁨을 알아차리는 수준을 넘어서 정서를 이해하는 정도로 확장된다(Gohm, 2003). 정서인식명확성은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중 하나로 Salovey 등(1995)은 정서지능을 정서에 대한 주의, 정서에 대한 명확한 인식, 그리고 정서 개선의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특질 상위-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를 개발하였다. 이수정과 이훈구(1997)는 TMMS를 변안하고 타당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서주의와 정서인식명확성이 개인의 감정부전의 정도를 가장 많이 예측한다고 밝혔다. 정서주의는 반추사고 등과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지만 정서 경험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역할이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이수정, 이훈구, 1997; Gohm, 2003; Lischetzke & Eid, 2003; Swinkels & Giuliano, 1995). 이에 반해 정

서인식명확성은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적응에 분명히 적응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었다(이수정, 이훈구, 1997; Gohm, 2003; Lischetzke & Eid, 2003). 특히, 강한 정서를 경험하지만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개인은 정서에 압도되며 정서를 회피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들은 자신의 정서에 혼란스러워하며 삶의 전반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Gohm, 2003). 또한, 정서인식명확성은 외로움과 부정 상관을 나타냈다. 문미선(2024)은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할수록 경험의 왜곡이 줄고 조망 능력을 갖춰 유대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귀국 청년은 재문화충격을 경험하며 정서인식명확성이 저하되어 외로움을 느끼는 등 적응에 어려움으로 이끌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귀국 청년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재문화적응과정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외로움은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중보건의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었다(Holt-Lunstad et al., 2015). 외로움은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자 하는 노력을 촉진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철수와 사회적 위협에 대한 주의가 커지는 등의 행동을 야기하기도 한다(Qualter et al., 2015). 사회적 철수가 장기화할수록 다시 사회와 연결될 기회는 제한되며 장기적인 외로움으로 이어져 심리 및 신체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Jobe-Shields et al., 2011; Qualter et al., 2015). 선행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우울 삽화,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공포증, 강박장애 등을 포함하는 일반 정신장애(Common Mental Disorder)와 강한 상관을 보이는 위험 요소로

드러났다(Stickley & Koyanagi, 2016). 더 나아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전 생애 동안 자살 사고 및 자살 시도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자살 행동 형태의 발생률 증가와 관련성이 밝혀졌다(Stickley & Koyanagi, 2016). 외로움은 정신병리 이외에도 낮은 자아 존중감(Pelman & Peplau, 1981), 애착불안(Wei et al., 2005) 등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주며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저해한다(Goodwin et al., 2001). 특히, 젊은 성인들은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며 외로움에 취약하다(Fried et al., 2001). 한편, Vivero와 Jenkins(1999)는 문화적 소속감이 부재한 귀국자는 주로 거부, 혼란, 고립 등을 경험하며 그 과정에서 외로움을 빈번하게 느낀다고 보고하였다(Vivero & Jenkins, 1999). 이를 종합해 볼 때, 귀국 청년이 한국에서 재적응하는 과정에서 외로움은 이들의 정신건강에 있어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재문화적응과정에서 개인은 대부분 재문화충격을 경험하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을 방해하고 전반적인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정서영, 송미경, 2017; 이승민, 2012; Salmon, 1987). 재문화충격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이다(Kelley, 2018). 귀국 청년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느낌으로 인해 모국에서도 외국인인 듯한 이질적인 느낌을 받아 재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Fail et al., 2004). 이에 따라, 귀국 청년의 재문화적응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 정도가 어떻게 개인이 현재 경험하는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귀국 청년들은 비교적 외로움을 많이 경험한다

(오경자 등, 2010; Gaw, 2000). 이들은 친밀한 대상의 부재 등으로 인한 개인적 외로움과 소속감의 부재 등으로 인한 사회적 외로움뿐만 아니라 선호하는 문화적 환경이 부재하여 나타나는 문화적 외로움 역시 경험한다(Sawir et al., 2008; Weiss, 1973). 귀국 청년이 자라온 특수한 환경이 형성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재문화적응의 과정이 현재 귀국 청년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청년의 외로움을 다룬 기존 연구들(이보미, 정남운, 2021; 최진환, 박정운, 2024; 박수빈, 홍정순, 2025)과는 달리 귀국 청년이라는 특수한 대상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귀국 청년의 문화가 외로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 귀국 청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귀국 청년의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가 어떤 기제를 통해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재문화충격과 정서인식명확성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귀국 청년의 재문화적응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개입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

어린 시절 이주를 통해 외국의 생활 방식을 경험한 사람들은 종종 정체성 혼란을 보고한다(Grimshaw & Sears, 2008).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고심(Hisano, 2015)하기도 하는데, 여러 문화를 경험한 개인의 독특한 경험과 정서를 설명하기 위해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라는 개념이 제안되었다(Navarrete & Jenkins, 2011).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는 ‘문화적 집단의 결핍’, ‘문화적 집단에 대한 감정적 이탈’, 그리고 ‘문화적 고향

에 대한 필요’라는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경험과 감정을 아우른다. 개인이 세 하위요인을 모두 가질 때 문화적 소속감이 부재한 것으로 여기며, 해당 개인은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 모두에게 거부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남지은 등, 2018).

문화적 소속감이 부재한 개인은 어린 시절 정체성 발달에서 혼란을 겪을 뿐 아니라, 성인기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한다(Vivero & Jenkins, 1999). 이들은 모국과 거주국 간의 상반되는 문화적 경향 사이의 대립 구조(conflicting frames)로 소외감이 생길 수 있다(Navarrete & Jenkins, 2011). 이러한 개인은 겉으로는 문화의 적응유형 중 통합 유형의 양상을 보이지만, 특정 집단이나 문화적 배경 내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개념화하거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한다(Navarrete & Jenkins, 2011).

현대사회에 많은 성인은 일상 속 문화적 다양성의 영향과 잦은 이동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변화를 경험한다. Pollock과 Van Reken(2008)에 따르면, 해외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성인은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끼면서도 정작 ‘집’이나 ‘고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경험하지 못한다. 이는 이들이 단일한 문화로 정의되기 어려운 경험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적 균형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귀국 후 개인은 예상치 못하게 변화한 모국의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문화적 근간이 흔들리는 경험을 한다(Pollock & Van Reken, 2008). 또한, 귀국 청년은 여러 문화적 구조에 노출된 경험으로 인해 발달 과정에서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신하은, 2022). 이러한 특성은 귀국 청년이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를 경험하기

쉬운 집단에 속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는 자아존중감, 불명확한 감정, 심리적 안녕감 등 다양한 심리적 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남지은, 2013; 남지은 등, 2018; Hoerstring & Jenkins, 2011). 특히, 문화적 소속감이 부재한 개인은 만성적인 외로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Vivero & Jenkins, 1999). 정체성을 확립하는 청소년 시기에 문화적 소속감이 부재하면 정체성 발달이 저해되며 대인관계와 사회 전체로부터의 소외감과 무력감으로 이어진다(Jayasundara, 2023). 이들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불편한 감정을 내면화하고 감정을 타당화 받지 못해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Fail et al., 2004, 남지은 등, 2018, 이영선, 이동훈, 2009).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여러 문화를 경험한 개인이 겪는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는 자연스러운 현상(Henderson, 2016)이지만, 개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와 관련된 여러 인지적·정서적 변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외로움

대다수 사람은 외로움을 경험하지만, 그 지속 정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Asher & Paquette, 2003; Ernst & Cacioppo, 1999). 외로움은 고독, 고립, 소외 등과 혼용되며(서영석 등, 2020) 학자마다 정의가 다르다. Perlman과 Peplau(1981)은 다양한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하여 외로움을 사회적 관계망이 결핍되었을 때 개인이 느끼는 불쾌한 감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외로움에 관한 여러 이론적 정의는 공통으로 ‘사회관계망의 결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정

예담, 2023). 외로움은 단순히 타인으로부터의 물리적 소외감이 아닌 유의미한 상호작용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즉, 타인과 보내는 시간의 양보다는 상호작용의 질이 외로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Asher & Paquette, 2003; Wheeler et al., 1983).

Sawir 등(2008)은 개인이 선호하는 문화적·언어적 환경이 부재한 이들이 자신과 다른 문화적 정체감을 가진 사람들과 만족스러운 상호작용을 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그 결과, 주변의 충분한 사회적 지지가 있음에도 문화적 외로움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다. 이를 통해,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를 지닌 귀국 청년(Navarrete & Jenkins, 2011) 역시 다른 사람들과 깊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하지 못해 외로움을 느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Navarrete-Vivero(1999)의 연구에서는 문화적 소속감이 부재한 개인은 자신과 유사한 사람을 찾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외로움을 보고하였다.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를 지닌 귀국자들은 자신이 주류문화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끼며 모국임에도 이방인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Fail et al., 2004). 남지은(2013)의 연구에 따르면, 귀국 청소년들은 겉으로 보기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적으로는 외로움을 경험한다. 귀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귀국 대학생이 일반 대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의 외로움을 보고하였으며 약 30%가 유의미하거나 심각한 수준의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경자 등, 2010; Gaw, 2000). 귀국 후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귀국하며 삶의 배경이 되는 문화권의 변화와 거주했던 해외 국가와 모국 간의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이주원, 2013).

재문화충격

재문화충격은 해외 거주 후 귀국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 혼란, 스트레스 등의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을 의미한다(Jandt, 2010; 이노미, 2017). 대부분의 귀국자는 재문화충격을 경험하며, 이는 해외에서 겪는 문화충격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보고된다(이승민, 2012; Adler, 1981; Martin, 1984; Storti, 2001). Gullahorn과 Gullahorn(1963)은 Lysgaard(1955)가 제시한 U-Curve 모형을 확장하여 W-Curve 모형을 제안하였다. U-Curve 모형은 새로운 문화에서 문화충격을 설명하며 다양한 학자가 분류한 문화적응과정을 포괄한다. U-Curve 모형은 다음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새로운 문화에 대해 무비판적이고 우호적인 신혼 단계(Honeymoon Phase), 둘째, 새로운 문화에서 일상을 경험하며 혼란, 우울 및 좌절을 경험하는 문화충격 단계(Culture Shock Phase), 마지막으로, 어려움이 해소되고 주류문화에 통합되는 적응 단계(Adjustment Phase)로 이루어진다(Martin, 1984). U-Curve 모형은 귀국 시에 반복되며 W-Curve 모형으로 확장된다(Gullahorn & Gullahorn, 1963).

일반적인 문화적응과 귀국 후의 재문화적응 과정에는 차이가 있다. 타국에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개인은 자신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를 예측할 수 있으며 주변인들 역시 이들의 어려움과 주류문화와는 다른 행동을 예상할 수 있다. 반면, 귀국하는 개인과 주변인들은 재문화적응의 어려움을 예측하지 못한다(Black et al., 1992; Martin, 1984; Storti, 2001). 특히, 해외 거주기간이 길수록 모국 사회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여 재문화적응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Black et al., 1992).

Storti(2001)는 해외 거주 후 귀국한 개인이 마주하는 적응의 어려움 중 정체성의 상실, 안정감 및 편안함의 상실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 소속감의 부재가 재문화충격의 핵심이라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Dormer(1979)는 청소년기에 해외에서 거주하여 문화적 소속감을 확립하지 못한 개인은 귀국 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타국에서 문화적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감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모국에서도 문화적 소속감이 없으면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다(Dormer, 1979). Fail 등(2004)은 이 과정에서 소속감의 부재가 재문화충격에 선행되어 나타난다고 밝혔다. 따라서, 문화적 소속감이 부재한 귀국 청년은 재문화충격에 취약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귀국 대학생의 재문화충격이 외로움을 이끈다고 밝혔으며(Gaw, 2000) Fanari와 Segrin(2021)은 높은 수준의 재문화충격을 외로움의 위험요인으로 제안하였다. 귀국 성인은 타인과 소통 시 이해받지 못하는 경험을 하고 당혹스러워하며 재문화충격을 경험한다(Stowe, 2003). 해외에서의 문화충격과는 달리, 재문화충격의 경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마주할 가능성이 낮아 어려움을 이해받지 못한다. 따라서, 귀국한 개인이 느끼는 두려움, 분노, 고통의 보편성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알지 못해 외로움을 경험한다(Storti, 2001). 이런 감정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다시 소통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이라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게 만든다(Stowe, 2003).

실제로, Fanari와 Segrin(2021)의 연구에서는 재문화충격과 외로움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며 재문화충격이 증가함에 따라 외로움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Gaw(2000)의 연구에서도 귀국 대학생은 재문화충격을 경험하고, 높은 수준의 외로움과 더불어 우울, 지각된 스트레스, 낮은 삶의 만족, 소외, 대인관계 어려움 등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Talawanich 등(2019)의 연구에서는 재문화충격을 경험한 귀국 청년들은 외로움을 느꼈으며 모국을 다시 떠나고 싶은 귀국 청년들도 있었다고 보고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높은 수준의 재문화충격이 외로움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인식명확성은 정서 인식 과정으로부터 비롯되는 개념으로 타인과 자신의 정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설명하는 능력을 의미한다(Salovey & Mayer, 1990). 정서인식명확성의 정도와 특성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은 사람은 인지적으로 유연하고, 자기 자비가 높고, 사회불안을 덜 느낄 뿐 아니라(김가연, 2021), 적응적인 정서 조절양식을 택한다(임전옥, 장성숙, 2003). 이처럼 정서인식명확성은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정서를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능력이다.

어린 시절 해외에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개인은 귀국 후 적응과정에서 해외 거주 경험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소극적 자기주장으로 감정이나 사고를 표현하지 못하여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이영선, 이동훈, 2009). 한편, 귀국 대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정서적 외로움을 경험하며(오경자 등, 2010) 정서적 소외감으로 인해 대학 생활 적응도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이주원, 2013).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해외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개인들이 귀국 후 적응과정에서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며,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를 겪을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귀국은 대인관계, 정체성, 세계관 등 여러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삶의 전환점이며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이다(Salmon, 1987). 스트레스는 귀국 과정에서 경험하는 재문화충격(Jandt, 2010)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생활스트레스는 정서인식명확성을 손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정서영, 송미경, 2017; 허유리, 2015), 귀국 청년이 겪는 스트레스, 재문화충격이 정서인식명확성을 저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낮은 수준의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은 수준의 외로움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했다(윤성희, 2018; 장은경, 2019; 황수현, 2023; 문미선, 2024). 황수현(2023)은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할수록 정서 경험을 토대로 진솔하게 상호작용하거나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외로움은 타인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이어지지 못해서 겪게 되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위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귀국 청년이 경험하는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와 외로움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재문화충격과 정서인식명확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재문화적응과정에서 귀국 청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법을 마련하는데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귀국 청년의 해외 거주와 관련

된 변인에 따라 주요 연구 변인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귀국 청년의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와 재문화충격, 정서인식명확성, 외로움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귀국 청년의 재문화충격과 정서인식명확성은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와 외로움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청년기본법」 법률 제19253호 (2023)에 규정되어 있는 청년 연령 범주 제한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5세 사이에 해당하는 만 18세 이전 출국하여 해외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귀국하여 현재 국내에 거주 중인 귀국 청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 모집을 위해 편의표집을 사용하였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브리타임 게시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각종 소셜 미디어) 및 지인들을 통해 홍보하여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 목적 및 연구 참여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하였으며 온라인 자기보고식 설문을 시행하였다. 데이터 수집 이후 성실하게 응답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안내한 바와 같이 추첨을 통해 5명에게 온라인 상품권 이만 원권과 10명에게 커피 상품권 오천 원권을 지급하였다. 총 144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그중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9명을 제외한 총 135명이 응답한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수는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특성	구분	빈도(백분율)
성별	남성	43(31.9)
	여성	92(68.1)
현재 나이	18~20세	34(25.2)
	21~23세	60(44.4)
	24세 이상	41(30.4)
직업	학생	99(73.3)
	직장인	22(16.3)
	기타	14(10.4)
해외 거주기간	3~5년	39(28.9)
	6~11년	53(39.2)
	12년 이상	43(31.9)
출국 나이	0~5세	48(35.6)
	6~11세	45(33.3)
	12~17세	42(31.1)
출국 목적	부모님의 직업	96(71.1)
	본인의 학업	31(23.0)
	기타	8(5.8)
해외 거주 국가 수	1개	82(60.7)
	2개 이상	53(39.3)
해외 거주 국가명	미국	32(15.0)
	튀르키예	32(15.0)
	중국	22(10.3)
	필리핀	19(8.9)
	캐나다	14(6.5)
	기타(46개국)	95(44.4)
귀국 나이	17세 이하	41(30.4)
	18~19세	53(39.2)
	20세 이상	41(30.4)
귀국 목적	대학 진학	62(46.6)
	본인의 결정	26(18.5)
	부모의 결정	27(20.0)
	코로나19	7(5.7)
	기타	13(9.1)
귀국 후 국내 거주기간	0~2년	43(31.9)
	3~4년	40(29.6)
	5년 이상	52(38.5)

G-power program을 활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주요 변수를 총 3개로 설정한 결과, 최소 표본의 수는 119명으로 그 이상을 충족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 연령은 22.87세($SD=3.33$)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남성 32%(43명), 여성 68%(92명)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도구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 척도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를 측정하기 위해 Hoerstring과 Jenkins(2011)가 개발하고 남지은(2013)이 해외에서 거주 후 귀국한 한국인 TCKs를 대상으로 변안한 문화적 소속감 부재의 척도(Cultural Homelessness Criteria)를 사용했다. 본 척도는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적 소속감 및 애착 부족, 문화적 고향 부재, 문화적 고향 필요의 3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소속감 부재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남지은(2013)의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3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10로 나타났다.

외로움 척도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해 Russell 등(1978)이 개발하고, Russell(1996)이 개정한 UCLA 외로움 척도 3판(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Loneliness Scale)을 진은주와 황석현(2019)이 변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UCLA 외로움 척도 3판을 사용하였다. 진은주와 황석현(2019)은 한국인 학부생을 대상으로 척도 변안 및 타당화

과정을 거쳤다. 본 척도는 단일요인 2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1, 5, 6, 9, 10, 15, 16, 19, 20번 문항은 역채점이 필요한 문항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의 정도 혹은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진은주와 황석현(2019)은 예비연구를 통해 문항 번역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탐색적 요인분석과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진은주와 황석현(2019)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77로 나타났다.

재문화충격 척도

재문화충격을 측정하기 위해 Fray(1988)가 개발하고 이승민과 양은주(2015)가 변안한 재문화충격척도(Homecomer Culture Shock Scale; HCSS)를 사용했다. 이승민과 양은주(2015)는 본 연구의 대상과 동일하게 19세 미만에 출국하여 해외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성인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번역, 역번역 과정을 거쳐 문항을 완성하였다. Fray(1988)의 재문화충격척도는 총 23문항으로 문화적 거리감, 대인 관계적 거리감, 슬픔, 도덕적 거리감의 총 4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승민과 양은주(2015)는 분석 과정에서 내적 일치도를 고려하여 도덕적 거리감에 해당하는 2문항과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1문항을 제외하여 총 20문항으로 척도를 최종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재문화충격이 강함을 의미한다. 이승민과 양은주(2015)의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이며, 본 연구에서는 .922로 나타났다.

정서인식명확성 척도

정서인식명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Salovey 등 (1995)이 개발하고 이수정과 이훈구(1997)가 한국문화에 맞게 타당화한 특질 상위-기분 척도 (Trait Meta-Mood Scale: TMM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정서에 대한 주의 5문항, 정서 개선 5문항, 정서인식명확성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수정과 이훈구(1997)는 척도에 대한 신뢰도와 요인분석을 시행하고 하위요인들과 관련 척도 간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명확성의 11 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Mood Awareness Scale(MAS)의 정서 명명파 수렴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이 중 4, 6, 7, 9, 10번 문항은 역채점이 필요한 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함을 의미한다. 국내 다양한 연구(김혜경, 이희경, 2025; 남지은 등, 2018; 정서영, 송미경, 2017)에서도 .78~.82로 일관된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이수정과 이훈구(1997)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4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63으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9.0과 SPSS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연구 참여자와 변인에 대한 특성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확인하였으며, 왜도와 첨도를 통하여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독립표본 t-검증, 일원분산분석, Scheffe 사후분석을 사용해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변인 간의 관련성을 알아봤으며, 변인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한 Pearson 상관분석의 결과와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이어 SPSS PROCESS macro Model 6번 모형을 통해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와 외로움의 관계에서 재문화충격과 정서인식명확성의 이중매개효과를 분석하였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통해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와 재문화충격에 대한 귀국 나이, 출국 나이, 해외 거주기간, 성별의 혼입 효과를 통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공변인으로 투입하여 그 효과를 통계적으로 통제하였다.

결 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연구 변인에 관한 차이검증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귀국 청년의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 외로움, 재문화충격, 정서인식명확성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일변량 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증을 통해 변인 간 차이를 알아보았다. 귀국 후 국내 거주기간, 해외 거주 국가 개수, 출국 목적, 귀국 목적, 해외 거주 국가 등의 경우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 외로움, 재문화충격, 정서인식명확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들을 제외한 귀국 나이, 출국 나이, 해외 거주기간,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표 2에서 표 5까지 제시하였다. 귀국 나이와

표 2. 귀국 나이에 따른 주요 연구 변인 모형 평가

종속변인	귀국 나이			<i>F</i>	사후 검정
	17세 이하 (n=41)(a)	18~20세 (n=53)(b)	21세 이상 (n=41)(c)		
	<i>M(SD)</i>	<i>M(SD)</i>	<i>M(SD)</i>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	2.21 (.69)	2.34 (.78)	2.64 (.73)	3.650*	a<c
재문화충격	2.81 (.74)	2.56 (.87)	2.85 (.72)	1.884	-
정서인식명확성	3.53 (.56)	3.66 (.62)	3.55 (.63)	0.648	-
외로움	2.14 (.44)	2.11 (.51)	2.15 (.46)	0.093	-

*p<0.05, **p< 0.01, ***p<0.001

표 3. 출국 나이에 따른 주요 연구 변인 모형 평가

변인	출국 나이			<i>F</i>	사후 검정
	5세 이하 (n=48)(a)	6~11세 (n=45)(b)	12~17세 (n=42)(c)		
	<i>M(SD)</i>	<i>M(SD)</i>	<i>M(SD)</i>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	2.65 (.79)	2.23 (.78)	2.27 (.60)	4.716*	b,c<a
재문화충격	2.90 (.75)	2.74 (.81)	2.51 (.80)	2.761	-
정서인식명확성	3.61 (.57)	3.44 (.69)	3.72 (.53)	2.384	-
외로움	2.15 (.53)	2.17 (.45)	2.07 (.42)	.534	-

*p<0.05, **p< 0.01, ***p<0.001

출국 나이에 따른 차이는 표 2와 표 3과 같이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에서만 나타났다. 만 17세 이하에 귀국한 청년보다 만 21세 이상 귀국한 청년이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귀국 나이가 많을수록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가 더 높게 나타났다. 만 5세 이하에 출국한 귀국 청년이 다른 집단보다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

표 4. 해외 거주기간에 따른 주요 연구 변인 모형 평가

변인	해외 거주기간			F	사후 검정
	3~5년 (n=39)(a)	6~11년 (n=53)(b)	12년 이상 (n=43)(c)		
	M(SD)	M(SD)	M(SD)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	2.07 (.61)	2.36 (.75)	2.73 (.75)	9.138***	a,b<c
재문화충격	2.43 (.79)	2.75 (.79)	2.94 (.75)	4.480*	a<c
정서인식명확성	3.67 (.53)	3.61 (.60)	3.49 (.68)	0.969	-
외로움	2.09 (.45)	2.10 (.43)	2.21 (.53)	0.773	-

*p<0.05, **p< 0.01, ***p<0.001

표 5. 성별에 따른 주요 연구 변인 모형 평가

변인	남성 평균	여성 평균	평균 차이	차이의 표준오차	t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	2.21	2.48	-.27	.14	-.198
재문화충격	2.41	2.87	-.46	.14	-3.21***
정서인식명확성	3.67	3.55	.13	.11	1.14
외로움	2.09	2.15	-.06	.09	-.73

*p<0.05, **p< 0.01, ***p<0.001

타났으며 출국 나이가 어릴수록 높은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가 나타났다. 해외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는 표 4와 같이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와 재문화충격에서 나타났다. 해외에서 12년 이상 거주한 귀국 청년은 다른 집단에 비해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해외 거주기간이 길수록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가 더 높게 나타났다. 재문화충격은 해외에 거주한 기간이 12년 이상인 집단이 3년 이상, 5년 이하 거주한 집단보다 유의

미하게 크게 나타났으며 해외 거주기간이 길수록 크게 나타났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재문화충격에서만 성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큰 재문화충격을 경험했다.

기술통계 및 변인 간 상관관계

주요 변인 간 상관계수와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표 6에 제시하였다. Kline(2016)은

표 6. 주요 변수 간 상관계수 및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1	2	3	4
1.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	-	-	-	-
2. 외로움	.446***	-	-	-
3. 재문화충격	.702***	.510***	-	-
4. 정서인식명확성	-.323***	-.499***	-.431***	-
평균(M)	2.39	2.13	2.72	3.59
표준편차(SD)	.75	.47	.80	.61
왜도	.26	.09	-.34	-.11
첨도	.02	-.50	-.50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왜도의 절대값이 3 이하, 첨도의 절대값이 10 이하이면 정규성 가정이 충족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변수는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였으므로, 정규분포를 가정한다. 상관분석 결과,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는 종속변인인 외로움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r = .446$, $p < .001$) 매개변인 중 재문화충격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r = .702$, $p < .001$), 정서인식명확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 = -.323$, $p < .001$). 외로움은 재문화충격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r = .510$, $p < .001$), 정서인식명확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 = -.499$, $p < .001$). 마지막으로 재문화충격과 정서인식명확성 사이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r = -.431$, $p < .001$).

매개효과 및 이중매개효과 검증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와 외로움의 관계에서 재문화충격과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표 7에,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참가자의 귀국 나이,

출국 나이, 해외 거주 기간과 성별은 공변인으로 투입하여 그 효과를 통계적으로 통제하였다.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는 매개변인인 재문화충격($B = .727$, $t = 10.479$, $p < .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정서인식명확성($B = -.046$, $t = -.482$, $p = .631$)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재문화충격은 정서인식명확성($B = -.300$, $t = -3.366$, $p < .01$)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외로움($B = .162$, $t = 2.569$, $p < .05$)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정서인식명확성은 외로움($B = -.260$, $t = -4.326$, $p < .001$)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끼쳤다. 또한,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와 외로움의 관계에서 재문화충격과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를 고려할 경우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와 외로움 간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고($B = .115$, $t = 1.772$, $p = .079$) 간접 경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와 외로움의 관계를 재문화충격과 정서인식명확성이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 유의도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 문화적 소속감의

표 7.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와 외로움의 관계에서 재문화충격과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검증

준거변인	예측변인	<i>B</i>	β	<i>SE</i>	<i>t</i>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외로움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	.302	.485	.053	5.653***	.196	.407
	F=6.865***, R ² =.210						
재문화충격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	.727	.687	.069	10.479***	.589	.864
	F=30.065***, R ² =.538						
정서인식 명확성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	-.046	-.057	.096	-.482	-.235	.143
	재문화충격	-.300	-.394	.089	-3.366**	-.476	-.124
F=5.038***, R ² =.191							
외로움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	.115	.185	.065	1.772	-.013	.244
	재문화충격	.162	.276	.063	2.569*	.037	.287
	정서인식명확성	-.260	-.336	.060	-4.326***	-.379	-.141
F=11.058***, R ² =.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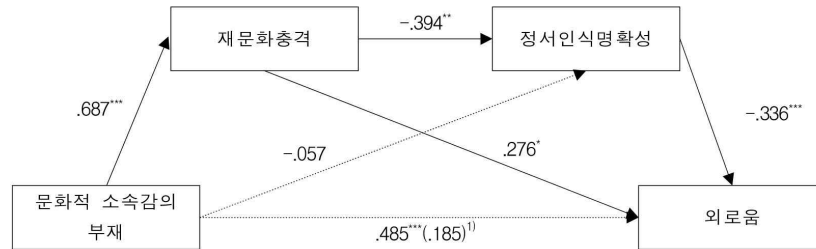
* p<0.05, ** p< 0.01, *** p<0.001

표 8.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와 외로움의 관계에서 재문화충격과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검증에 대한 부트스트랩 검증

경로	<i>B</i>	β	<i>SE</i>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 → 재문화충격 → 외로움	.118	.190	.048	.021	.213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 → 정서인식명확성 → 외로움	.012	.019	.030	-.041	.079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 → 재문화충격 → 정서인식명확성 → 외로움	.057	.091	.025	.017	.115
총 간접효과	.187	.300	.051	.085	.290
직접효과	.115	.185	.065	-.013	.244
총 효과	.302	.485	.053	.196	.407

부재와 외로움의 관계에서 재문화충격과 정서인식명확성의 총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 내에서 [.085~.290]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가 재문화충격을 거쳐 외로움으로 가는 경로는 95% 신뢰구간 내에서 [.021~.213]로 '0'을



*p<0.05, **p<0.01, ***p<0.001

1)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와 외로움 간의 직접효과

그림 1. 연구 최종모형 및 표준화 계수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가 정서인식명확성을 거쳐 외로움으로 가는 경로는 95%의 신뢰구간 내에서 [-.041~.079]으로 '0'을 포함하여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와 외로움의 관계에서 재문화충격과 정서인식명확성이 순차매개하는 경로는 95% 신뢰구간 내에서 [.017~.115]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의 최종모형과 표준화 계수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귀국 청년 135명을 대상으로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재문화충격과 정서인식명확성이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문화적 소속감 부재, 재문화충격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귀국 나이, 출국 나이, 해외 거주기간에 따라

문화적 소속감 부재 수준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성별과 해외 거주기간에 따라 재문화충격의 정도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귀국 나이가 많을수록, 출국 나이가 어릴수록, 해외 거주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문화적 소속감 부재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며(이수경, 2017; Hoersting & Jenkins, 2011; Navarrete & Jenkins, 2011), 어린 나이에 여러 문화를 경험하면 부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하거나 집단으로부터 소외되고 거부당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Navarrete & Jenkins, 2011). 이러한 경험은 해외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축적되며, 궁극적으로 소속감 부재로 이어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귀국 시기가 늦을수록 문화적 소속감 부재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Berry(1997)는 나이가 많은 청소년일수록,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 전환기에서 겪는 정체성의 갈등이 문화적응과정에 중첩되어, 적응에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았다. 이 시기에는 자아정체성과 문화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심화하고 사회적 소속감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 소속되는지에 대한 혼란이 커질 수 있다(Berry, 1997; Newman et al., 2007). 따라서, 귀국 청년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하는 시기에 귀국하게 되면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가 심화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재문화충격과 인구통계학적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해외 거주기간이 길수록 재문화충격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Moore et al., 1987)와 일관되며, 모국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재문화적응과정에서 재문화충격을 경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재문화충격의 수준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Linehan과 Scullion(2002)은 사회적으로 전통적인 성 역할을 강요받는 여성이 남성보다 재문화적응과정에서 더 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재문화적응과정에서 여성 귀국 청년이 재문화충격에 비교적 취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정서인식명확성 및 외로움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게 해외 거주기간과 출국 나이에 따른 정서인식명확성의 차이와 귀국 나이에 따른 외로움의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본 연구와 동일하게 성별에 따른 정서인식명확성의 차이와 해외 거주기간과 성별에 따른 외로움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장예은, 2017; Neto, 2016). 이는 본 연구의 제한된 표본의 수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정서인식명확성 및 외로움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직 귀국 청년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심리 및 정서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한정적이다. 따라서, 귀국 청년의 특히 해외 거주와 관련된 변인에 따라 귀국 청년에게 나타나는 차이에 대한 추후 탐색이 필요하다.

둘째, 주요 변인 간의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는 재문화충격, 외

로움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가 문화충격 및 외로움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Navarrete-Vivero(1999)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는 정서인식명확성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어느 문화도 수용하지 않고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주변화 유형이 정서인식명확성이 부적으로 관련 있다고 밝힌 Schmitz와 Schmitz(2012)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재문화충격과 외로움의 정적 상관은 선행연구들에 의해 지지가 된 바와 같다(Gaw, 2000; Fanari & Segrin, 2021; Storti, 2001). 정서인식명확성은 재문화충격, 외로움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인식명확성이 재문화충격과 같은 개인의 스트레스와 외로움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정서영, 송미경, 2017; 윤성희, 2018; 장은경, 2019; 황수현, 2023; 문미선, 2024; 허유리, 2015).

셋째,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는 외로움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즉,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를 많이 느낄수록 외로움의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귀국 청년의 정체성 중 문화적 소속감이 개인의 외로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며 문화적 소속감이 부족한 개인은 외로움을 느낀다는 Vivero와 Jenkins(1999)의 연구와 부합한다. 문화적 소속감이 부재한 귀국자의 경우 걸모습은 자국민과 유사하지만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숨은 이민자’(Pollock & Van Reken, 2008)로 살아가며 진정으로 이해받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Navarrete-Vivero, 1999). 이러한 경험의 축적으로 인해 문화적 소속감이 부재한 귀국 청년은 외로움을 느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그들이 겪는 외로움의 기제를 이해할 수 있다.

넷째,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와 외로움의 관계에서 재문화충격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어느 문화에서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경험하는데,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와 외로움의 관계에서 재문화적응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는 재문화충격을 증가시켜 귀국 청년은 모국에서도 홀로 '다르다'라고 느껴 외로움을 심화시킬 수 있다(Dormer, 1979; Storti, 2001). 귀국한 개인이 재문화충격을 겪으면서 느끼는 심리적 고통은 때로 비정상적으로 간주되어 적응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어려움에 대해 주변의 이해나 수용을 받지 못하며 외로움이 깊어질 수 있다(Storti, 2001).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개인이 귀국 후 재문화충격과 외로움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는 Gaw(2000)의 연구 결과도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재문화적응과정에서의 외로움을 이해하기 위해 문화적 소속감이 부재한 개인의 재문화충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와 외로움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귀국 청년일수록 외로움의 수준이 높았으나,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와 정서인식명확성은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외로움과 관련이 있음에도 또 다른 변수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귀국 청년의 정서인식명확성은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와 외로움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며 외로움에는 정서인식명확성뿐 아니라 재문화충격과 다른 기제들이 추가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와 외로

움 간의 관계에서 재문화충격과 정서인식명확성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가 외로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두 변인 간의 관계는 재문화충격과 정서인식명확성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귀국 청년이 문화적 소속감 부재 수준이 높을수록 재문화충격을 더 크게 경험하고, 이로 인해 정서인식명확성이 저하되어 외로움이 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Kranz와 Goedderz(2020)의 연구에서 문화 정체성 형성과 귀국 시 어려움 간의 부적 상관이 있다는 결과처럼,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재문화적응과정에서 다양한 고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귀국 청년이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를 느낄수록 재문화충격이 증가하고(Dormer, 1979),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워지는 것으로 보인다(Martin, 1984; Schulz, 1986). 특히, 재문화적응과정에서의 스트레스인 재문화충격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적절한 대비나 대처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Storti, 2001). 재문화충격은 정서인식명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인관계에서 정서 표현에 갈등을 겪으며 소통이 부족해져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고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윤성희, 2018). 정리하면, 문화적 소속감이 부재한 귀국 청년은 재문화충격을 크게 경험할 뿐만 아니라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외로움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가 외로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재문화충격과 정서인식명확성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간의 이동이 활발한 현대사회에서 새

로운 문화를 접할 때의 문화적 충격과 적응 (김성희, 김성해, 2013; 김현재, 2024; 양지민 등, 2024; 이수경, 2014; Berry, 1992; Furnham, 2010; Lee et al., 2004)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모국에서의 재문화 적응과정과 귀국 청년의 외로움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하지만, 귀국하였을 때의 적응 과정이 타국에서의 적응과정에 비해 비슷하거나 더 힘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이승민, 2012; Adler, 1981; Martin, 1984; Storti, 2001), 귀국 청년의 재문화적응은 타국에서의 문화적응만큼의 연구 필요성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와 재문화충격, 정서인식명확성, 외로움의 관계를 검증하여 여러 문화를 경험한 귀국 청년의 자연스러운 현상인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가 외로움을 경험하게 하는 구체적 경로를 확인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재문화적응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귀국 청년을 상담할 때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귀국 청년들이 문화적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정도에 따라 재문화충격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명확한 정서인식을 저해하여 외로움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귀국 청년들이 재문화적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이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소속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문화를 경험한 귀국 청년들이 단일 문화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이들만의 교차문화적 정체성(Cross-Cultural Identity, CCI)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문화적 소속감 부재를 해소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Haslam et al., 2022; Wakefield et al., 2022). Greenholtz와 Kim(2009)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

화 경험을 가진 개인들이 자신과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상담 등의 심리적 개입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재문화적응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수용 받는 경험을 가능하게 하여 교차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집단 기반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정체성은 소속감을 증진하고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한다고 밝혀졌다(Haslam et al., 2022; Wakefield et al., 2022). 즉, 귀국 청년들이 다른 귀국 청년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이 경험하는 현상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문화적 소속감이 부재해 재문화충격을 크게 경험하여 정서인식명확성이 저하되고 외로움을 느끼는 귀국 청년에게는 가족의 이해와 지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귀국 청년이 겪는 재문화적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가족치료적 접근이 효과적인 지원 방식이 될 수 있다. 재문화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치료는 적절한 접근으로 보고된다(Baker, 1999). 귀국한 개인들은 모국에서의 사회적 교류가 제한된 만큼 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재문화충격 완화에 핵심적이다(Kim & Park, 2023).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회적 지지 체계로 귀국 등 큰 변화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이승민, 양은주, 2015). 그러나 성인이 된 이후에 해외에서 거주한 부모는 이미 모국에 대한 소속감을 형성했기 때문에 재문

화충격을 경험하지 않는 경우 빈번하여 자녀가 경험하는 재문화충격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Dormer, 1979; Hervey, 2011). 특히,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가족이나 공동체는 귀국자가 모국 사회에 재적응하기 위해 다시 배우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Baker, 1999). 가족치료를 통한 부모-자녀 간의 원활한 소통은 개인이 경험하는 ‘다르다’라는 느낌과 적응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수용감과 자기가치 확인을 향상해 귀국 후 경험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Yoshida et al., 2002). Dai 등(2025)에 따르면 가족 간의 지지적 관계는 자녀의 심리적 회복력과 적응에 도움을 주어 심리적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 특히, 어머니는 정서조절과 안전감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가족상담을 통해 지지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문화적 소속감과 정서인식명확성이 부족한 귀국 청년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담 개입은 귀국 청년의 어려움을 가족들이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재문화충격으로 심리적 불편감이 큰 귀국 청년에게는 심리치료와 연계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정서조절 워크숍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어린 시절에 출국하여 장기간 해외에 머물다가 귀국한 여성 청년일수록 재문화충격이 심한 경향을 보이므로,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귀국 청년들이 재문화적응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심리적 개입의 개발과 실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추후 귀국 청년들의 적응을 돕는 집단상담, 가족상담, 정서조절 프로그램 등의 개발 혹은

개입을 위한 사회적 제도를 개선할 때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만을 사용하여 응답자의 주관적인 인식에 영향을 받아 객관적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단일 시점으로 수집한 횡단연구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하거나 시간에 따른 변화 과정을 반영하기 어렵다.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와 재문화충격은 연속적인 심리적 변화를 겪는 과정이므로, 단일 시점의 측정만으로는 복합적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한계가 있다. 재문화적응은 역동적인 과정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며 문화적응의 단계에 따라 개인은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Gullahorn & Gullahorn, 1963; Sussman, 2000). 향후 연구에서는 귀국 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심리적 변화의 양상을 추적하는 종단연구를 실시하거나, 질적연구를 통해 귀국 청년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귀국 청년의 재문화적응과정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로 인한 재문화충격이 재문화적응과정에서의 스트레스를 야기하며(Fail et al., 2004; Gaw, 2000) 해당 스트레스는 정서인식명확성을 낮춘다는(정서영, 송미경, 2017)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재문화충격이 정서인식명확성에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반대로, 정서인식명확성이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한 선행연구도 존재하기에(김현주, 2013) 정서인식명확성이 재문화충격의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 등 문화적 요인

을 정서인식명확성과 직접적으로 연결한 연구는 한정적이기에 재문화충격과 정서인식명확성의 관계를 역으로 설정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도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와 외로움 간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와 정서인식명확성 사이 추가 경로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문화적 요인과 정서인식명확성 간의 관계를 추가로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한정된 표본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다소 편향된 인구통계학적 분포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해외 거주 국가에 따른 주요 변인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해외 거주 국가가 유의미하지 않은 변인이라 해석하기보다는 본 연구의 표본이 미국(15.0%), 튀르키예(15.0%), 중국(10.3%)에 편향되어 있으며 그 외의 48개의 국가는 각 10% 미만으로 나타났고 대륙별 분류의 분포 역시 고르게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짐작된다(아시아[43.9%], 유럽[23.8%], 아메리카[22.4%], 아프리카[6.1%], 오세아니아[3.7%]). 그러나, 서양 문화에서 거주 후 동양 문화로 귀국하였을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연구(Pritchard, 2011; Weaver, 1987)와 같이 거주국의 문화와 모국 문화의 유사도에 따라 주요 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화권의 해외 거주 국가를 포함한 폭넓은 표본 수집과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추가로 고려하여 귀국 청년의 재문화적응의 맥락을 입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가연 (2021). 대학생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사회불안의 관계: 인지적 유연성과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성희, 김성해 (2013).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4(8), 3832-3842.
- 김현재 (2024).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습 성과의 관계에서 한국어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4(5), 439-454.
- 김현주 (2013). 청소년의 정서자각, 지각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혜경, 이희경 (2025). 거부민감성이 분노억제에 미치는 영향: 자기침묵과 정서인식명확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32(1), 1-22.
- 김혜정 (2021). 한국 제3문화 성인아이들(Korean Adult Third Culture Kids)의 사회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재활심리연구, 28(1), 163-180.
- 남지은 (2013). 제3문화아이들의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정서인식명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남지은, 남지혜, 김동일 (2018). 교차문화 청소년들의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정서인식명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32(3), 571-596.
- 문미선 (2024). 중년남성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외로움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의 매개효과.

- [석사학위논문, 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
- 문화다양성아카이브 (n.d.). 문화다양성이란?. <https://cda.or.kr/IntroduceCDA>
- 박수빈, 홍정순 (2025). 대학생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외로움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과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7(1), 215-242.
- 서영석, 안수정, 김현진, 고세인 (2020). 한국인의 외로움(loneliness): 개념적 정의와 측정에 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9(2), 205-247.
- 신하은 (2022). Cultural homelessn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ird culture kids.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양지민, 박경아, 정재원 (2024). 한국문화 부적응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와 결혼만족도 향상 소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교정상담학연구**, 9(1), 85-121.
- 오경자, 박규리, 오서진 (2010). 해외거주 후 국내대학에 진학한 귀국 대학생의 문화적응양상과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6(2), 125-146.
- 윤성희 (2018). 심리적 부모화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노미 (2017). 역문화충격의 구조적 요인과 적응과정에서의 비교문화역량 연구.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5(2), 45-77.
- 이보미, 정남운 (2021). 어머니 양육 행동이 대학생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분노억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1), 391-416.
- 이서정 (2006). 정서인식의 명확성, 인지적 정서조절 및 정신건강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이수경 (2014). 해외거주 CCKs(Cross-Culture Kids: CCKs)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수경 (2017). 제3문화 아이들(Third-Culture Kids: TCKs)의 문화적소속감 부재와 심리적안녕감 간의 관계: 적응유연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3), 131-154.
- 이수정, 이훈구 (1997). Trait Meta-Mood Scale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95-116.
- 이승민 (2012). 귀국성인집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이승민, 양은주 (2015). 재문화충격과 주관적 안녕감 간 관계에서지지체제와 문화정체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1), 45-66.
- 이영선, 이동훈 (2009). 귀국 청소년의 국내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0(4), 1783-1804.
- 이주원 (2013). 귀국 대학생의 민족적 정체감과 정서적 소외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지영, 권석만 (2006). 정서조절과 정신병리의 관계: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461-493.
- 임전옥, 장성숙 (2003).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조절양식과 심리적 안녕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259-275.

- 장예은 (2017). 귀국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동대학교].
- 장예은, 김향미, 김혜정 (2019). 귀국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 자기개념 명확성, 정서인식 명확성, 회복탄력성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6), 1197-1214.
- 장은경 (2019). 중년 여성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외로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 정서영, 송미경 (2017).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정서인식 명확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2(1), 61-80.
- 정안숙, 오경자, 오서진, 박규리 (2015). 해외거주 귀국 대학생들의 “모국” 문화재적응: 문화정체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1), 1-20.
- 정예담 (2023). 초기 성인기 자기개념 명확성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 조성경, 최연실 (2014). 남·녀 대학생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의 영향. *가족과 가족치료*, 22(1), 53-74.
- 진은주, 황석현 (2019). 한국판 UCLA 외로움 척도 3판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6(10), 53-80.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항(2023. 03. 21. 법률 제19253호로 개정된 것).
<https://www.law.go.kr/법령/청년기본법>
- 최인화 (2009). Socio-cultural readjustment of Korean students returning from oversea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10(1), 87-98.
- 최진환, 박정운 (2024). 청년 1인 가구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9(1), 37-60.
- 최해연, 민경환 (2007).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의 타당화 및 억제 개념들 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 성격*, 21(4), 71-89.
- 서애영 (2023. 06. 09). 한국,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위원국 선출. 코리아넷뉴스.
<https://www.kocis.go.kr/koreanet/view.do?seq=1045100&page=1&pageSize=10&photoPageSize=6&totalCount=11803&searchType=&searchText=%EB%AC%B8%ED%99%94%EB%8B%A4%EC%96%91%EC%84%B1&searchCondition=1&cateCode=>
- 통계청 (2024. 07). 「국제인구이동통계」, 내외국인/성/연령별 국제이동(월간, 연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8025&conn_path=I2
- 한건수 (2015). 한국 사회와 문화다양성: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의미와 과제. *국제이해교육연구*, 10(2), 163-199.
- 허유리 (2015).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신체화의 관계에서 정서인식 명확성과 낙관성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일반대학원].
- 황수현 (2023). 내현적자기애와 외로움의 관계: 거부민감성과 정서인식 명확성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 Adler, N. J. (1981). Re-entry: Manag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Group & Organization Studies*, 8(3), 341-356.

- Asher, S. R., & Paquette, J. A. (2003). Loneliness and peer relations in childhood.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2(3), 75-78.
- Baker, K. A. (1999). Acculturation and reacculturation influence: Multilayer contexts in therapy. *Clinical Psychology Review*, 19(8), 951-967.
- Berry, J. W. (1992).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 a new society. *International migration*, 30, 69-69.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34.
- Bikos, L. H., Kocheleva, J., King, D., Chang, C. G., McKenzie, A., Roenicke, Campbell, V., & Eckard, K. (2009). A consensual qualitative investigation into the repatriation experiences of young adult, missionary kids.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12, 735-754.
- Black, J. S., Gregersen, H. B., & Mendenhall, M. E. (1992). Toward a theoretical framework of repatriation adjust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3, 737-760.
- Bonebright, D. A. (2010). Adult third culture kids: HRD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13(3), 351-359.
- Ciarrochi, J., Deane, F. P., & Anderson, S. (2002). Emotional intelligence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mental health.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2), 197-209.
- Dai, B., Peng, M., & Du, S. (2025). The Impact of Parent - Child Relationships on the Mental Health of Returnee Children: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Resilience. *Child & Family Social Work*.
- Dormer, R. (1979). We are the rootless ones. *Ecolint Newsletter*, 13(Spring), 3.
- Erikson, E.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Ernst, J. M., & Cacioppo, J. T. (1999). Lonely heart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loneliness.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8(1), 1-22.
- Fail, H., Thompson, J., & Walker, G. (2004). Belonging, identity and third culture kids: Life histories of former international school students. *Journal of research in international education*, 3(3), 319-338.
- Fanari, A., & Segrin, C. (2021). Longitudinal effects of US students' reentry shock on psychological health after returning home during the COVID-19 global pandemic.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82, 298-310.
- Fray, J. S. (1988). *An exploratory study of the culture shock experience of missionary children homecomer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nnessee].
- Fried, L. P., Tangen, C. M., Walston, J., Newman, A. B., Hirsch, C., Gottdiener, J., Seeman, T., Tracy, R., Kop, W. J., Burke, G., McBurnie, M. A., & Cardiovascular Health Study Collaborative Research Group (2001). Frailty in older adults: evidence for a phenotype.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A, Biological sciences and medical sciences*, 56(3), M146 - M156.
- Furnham, A. (2010). Culture shock: Literature review, personal statement and relevance for the South Pacific. *Journal of Pacific Rim*

- Psychology*, 4(2), 87-94.
- Gaw, K. F. (2000). Reverse culture shock in students returning from oversea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4(1), 83-104
- Greenholtz, J., & Kim, J. (2009). The cultural hybridity of Lena: A multi-method case study of a third culture kid.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3(5), 391-398.
- Gerner, M., Perry, F., Moselle, M. A., & Archbold, M. (1992).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ly mobile adolescent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0(2), 197-214.
- Gohm, C. L. (2003). Mood regula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3), 594.
- Goodwin, R., Cook, O., & Yung, Y. (2001). Lonelines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ree cultural groups. *Personal Relationships*, 8(2), 225-230.
- Grimshaw, T., & Sears, C. (2008). 'Where am I from?' 'Where do I belong?': The negotiation and maintenance of identity by international school students. *Journal of Research in International Education*, 7(3), 259-278.
- Gullahorn, J. T., & Gullahorn, J. E. (1963). An extension of the U-Curve Hypothesis 1. *Journal of social issues*, 19(3), 33-47.
- Haslam, S. A., Haslam, C., Cruwys, T., Jetten, J., Bentley, S. V., Fong, P., & Steffens, N. K. (2022). Social identity makes group-based social connection possible: Implications for loneliness and mental health.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43, 161-165.
- Henderson, D. (2016). Cultural homelessness: A challenge to theory and practice. *Psychodynamic Practice*, 22(2), 165-172.
- Hervey, E. G. (2011). Returning to My Parents' Foreign "Home". In Bell-Villada, G. H., Sichel, F., Eidse, F. and Orr, E. (Eds.), *Writing Out of Limbo: International Childhoods, Global Nomads and Third Culture Kids* (pp. 165-179). Newcastle-upon-Tyn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 Hisano, Y. (2015). *The narratives of adult third culture kids : cultural identity development and psychological support upon reentry to one's home country* [Masters Thesis, Smith College].
- Hoersting, R. C., & Jenkins, S. R. (2011). No place to call home: Cultural homelessness, self-esteem and cross-cultural ident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5(1), 17-30.
- Holt-Lunstad, J., Smith, T. B., Baker, M., Harris, T., & Stephenson, D. (2015).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as risk factors for mortality: a meta-analytic review.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0(2), 227-237.
- Jandt, F. E. (2010). *An Introduction to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dentities in a Global Community*. SAGE.
- Jayasundara, N. (2023). *Cultural Homelessness and Ambiguous Loss in Adults Who Migrated as Adolescents: A Phenomenological Inquiry*. [Doctoral Dissertation, Alliant International University].
- Jobe-Shields, L., Cohen, R., & Parra, G. R. (2011). Patterns of change in children's loneliness: Trajectories from third through fifth grades. *Merrill-palmer quarterly*, 57(1), 25-47.
- Kim, S., & Park, J. H. (2023). Perceived social

- support and social anxiety among Korean Returnee Cross-Cultural Individuals: a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re-aculturative stress and self-compass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55, 107238.
- Kelley, D. S. (2018). International school students, cultural homelessness and home culture re-entry: a brief review of the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Teaching and Case Studies*, 9(4), 364-381.
- Kline, R. B. (2016).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Guilford Press.
- Kranz, D., & Goedderz, A. (2020). Coming home from a stay abroad: Associations between young people's reentry problems and their cultural identity form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74, 115-126.
- Lee, J. S., Koeske, G. F., & Sales, E. (2004). Social support buffering of acculturative stress: A study of mental health symptoms among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8(5), 399-414.
- Linehan, M., & Scullion, H. (2002). Repatriation of female executives: empirical evidence from Europe. *Women in Management Review*, 17(2), 80-88.
- Lischetzke, T., & Eid, M. (2003). Is attention to feelings beneficial or detrimental to affective well-being? mood regulation as a moderator variable. *Emotion*, 3(4), 361-377.
- Lysgaard, S. (1955). Adjustment in a foreign society: Norwegian Fulbright grantees visiting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bulletin*.
- Martin, J. N. (1984). The intercultural reentry: Conceptualization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8(2), 115-134.
- McFarland, C., & Buehler, R. (1997). Negative affective states and the motivated retrieval of positive life events: The role of affect acknowle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1), 200.
- Moore, L., Van Jones, B., & Austin, C. N. (1987). Predictors of reverse culture shock among North American Church of Christ missionarie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5(4), 328-333.
- Navarrete-Vivero, V. (1999). *Ethnically mixed individuals: Cultural homelessness or multicultural integration?* [Master Thesis, University of North Texas].
- Navarrete, V., & Jenkins, S. R. (2011). Cultural homelessness, multiminority status, ethnic identity development, and self esteem.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5(6), 791-804.
- Neto, F. (2016). Predictors of loneliness among Portuguese youths from returned migrant famil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6, 425-441.
- Newman, B. M., Lohman, B. J., & Newman, P. R. (2007). Peer group membership and a sense of belonging: their relationship to adolescent behavior problems. *Adolescence*, 42(166).
- Nielsen, K. (2022). *Assess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Cultural Formulation Interview in Conceptualizing Reverse Culture Shock*. [Master

- Thesis, Minnesota State University].
- Perlman, D., & Peplau, L. A. (1981). Toward a social psychology of loneliness. *Personal relationships*, 3, 31-56.
- Pollock, D. C., & Van Reken. (2008). 제3문화 아이들. (박주영 역). 서울: 비즈 앤 비즈. (원본출판 2001년).
- Pollock, D. C., Van Reken, R. E., & Pollock, M. V. (2010). *Third Culture Kids: The experience of growing up among worlds: The original, classic book on TCKs*. Hachette UK.
- Pritchard, R. (2011). Re-entry trauma: Asian re-integration after study in the West.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5(1), 93-111.
- Qualter, P., Vanhalst, J., Harris, R., Van Roekel, E., Lodder, G., Bangee, M., ... & Verhagen, M. (2015). Loneliness across the life span.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0(2), 250-264.
- Russell, D., Peplau, L. A., & Ferguson, M. L. (1978). Developing a measure of lonel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2(3), 290-294.
- Russell, D. W. (1996). UCLA Loneliness Scale (Version 3): Reliability, validity, and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1), 20-40.
- Salmon, J. L. (1987). *The relationship of stress and mobility to the psycho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of third-culture-reared early adults*. [Doctoral Dissertation,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 Salovey, P., Mayer, J. D., Goldman, S. L., Turvey, C., & Palfai, T. P. (1995).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125-154.
- Sawir, E., Marginson, S., Deumert, A., Nyland, C., & Ramia, G. (2008). Loneliness and international students: An Australian study.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2(2), 148-180.
- Schmitz, P. G., & Schmitz, F. (2012).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culturation. *Behavioral Psychology*, 20(1), 15-41.
- Schulz, D. M. (1986). *A study of third culture experience in relation to the psychosocial adjustment of returned church of christ missionary famili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braska].
- Stickley, A., & Koyanagi, A. (2016). Loneliness, common mental disorders and suicidal behavior: Findings from a general population surve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97, 81-87.
- Storti, C. (2001). *The art of coming home*. Nicholas Brealey.
- Stowe, G. P. (2003). *The impact of meaningful roles and role partners on the experiences of culture shock and reverse culture shock*. [Doctoral dissertation, Fielding Graduate Institute].
- Sussman, N. M. (2000). The dynamic nature of cultural identity throughout cultural transitions: Why home is not so swee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4(4), 355-373.
- Swinkels, A., & Giuliano, T. A. (1995). The measurement and conceptualization of mood awareness: Monitoring and labeling one's

- mood stat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9), 934-949.
- Talawanich, S., Jianvittayakit, L., & Wattanacharoensil, W. (2019). Following a wonderful overseas experience: what happens when Thai youths return home?. *Tourism Management Perspectives*, 31, 269-286.
- Vivero, V. N., & Jenkins, S. R. (1999). Existential hazards of the multicultural individual: Defining and understanding "cultural homelessnes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5(1), 6.
- Wakefield, J. R. H., Kellezi, B., Stevenson, C., McNamara, N., Bowe, M., Wilson, I., ... & Mair, E. (2022). Social Prescribing as 'Social Cure': A longitudinal study of the health benefits of social connectedness within a Social Prescribing pathway.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7(2), 386-396.
- Weaver, G. (1987). The process of reentry. *The Advising Quarterly*, 25), 1-9.
- Wei, M., Russell, D. W.,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social self-efficacy, self-disclosure, loneliness, and subsequent depression for freshman college student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4), 602-614.
- Weiss, R. S. (1973). *Loneliness: The experience of emotional and social isolation*. The MIT Press.
- Wheeler, L., Reis, H., & Nezlek, J. B. (1983). Loneliness, social interaction, and sex ro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4), 943.
- Wood, D., Crapnell, T., Lau, L., Bennett, A., Lotstein, D., Ferris, M., & Kuo, A. (2018). Emerging adulthood as a critical stage in the life course. *Handbook of life course health development*, 123-143.
- Yoshida, T., Matsumoto, D., Akiyama, T., Moriyoshi, N., Furuiye, A., Ishii, C., & Franklin, B. (2002). The Japanese returnee experience: Factors that affect reent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6(4), 429-445.

논문 투고일 : 2025. 02. 27
1 차 심사일 : 2025. 04. 14
게재 확정일 : 2025. 05. 14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Homelessness and Loneliness among Youth Returnees: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Reverse Culture Shock and Emotional Clarity

Chae-eun Kim Yoo-Chan Kim Gyumin Lee Kumlan Yu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homelessness and loneliness among youth returnees, focusing on the sequential mediating roles of reverse culture shock and emotional clarity. A total of 135 youth returnees (Mean age=22.87, SD=3.3, 92 females, 32 from the United States, 32 from Türkiye) participated in an online survey.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9.0, including basic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independent samples t-tests, and one-way ANOVA. In addition, sequential mediation effects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PROCESS macro Model 6, and the significance of the indirect effects was verified through the bootstrapping metho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ndividuals who returned to Korea at an older age, who has left Korea at a younger age, or spent longer periods abroad reported higher levels of cultural homelessness. Women or those with longer overseas stays experienced greater levels of reverse culture shock. Second, cultural homelessness, reverse culture shock, and lonelines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hile emotional clarity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se variables. Third, reverse culture shock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homelessness and loneliness. However, emotional clarity alone did not demonstrate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Fourth,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homelessness and loneliness was fully mediated through the sequential effects of reverse culture shock and emotional clarity. These findings provided insight into the psychological mechanisms linking cultural homelessness and loneliness among youth returnees and offered an opportunity to consider psychological approaches for youth returnees.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youth returnee, cultural homelessness, reverse culture shock, emotional clarity, loneliness